

목조 아미타여래 좌상

조교도(常行堂)의 본존은 그 광명으로 영원한 은혜를 베푼다는 아미타여래상입니다. 아미타여래는 눈을 반쯤 감고, 양손을 맞대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원을 만든 형태인 아미타정인을 맺고 명상하는, 고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불교에서 부처와 보살은 많은 경우 ‘32 상’의 몇 가지 특징을 갖고 묘사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자비, 지혜 및 깨달음을 의미합니다. 이들은 좁고 긴 컷볼, 정수리 부분에 솟아오른 육계 및 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인 나발 등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. 이마에는 제 3의 눈으로서 수정 백호가 있으며, 환상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

이 아미타여래상은 여러 노송나무 재료를 조합하여 고정한 다음에 조각하고, 그 뒤 옷칠을 하고 금박을 붙인 요세기즈쿠리로 만들어졌습니다. 자료의 기록으로는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(910~1007)의 제자였던 조각가 안친이 1005 년경에 이 불상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미타여래상과 조교도는 모두 일본 중요문화재입니다.

아미타여래는 금빛의 광륜과 머리 뒤에서 나오는 광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. 광륜의 주된 역할은 아미타여래와 그 양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, 자비와 지혜의 두 보살을 상징하는 세 산스크리트 문자로 장식하는 것입니다. 나무로 만들어진 배경에는 아미타여래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극락정토에서 내려올 때 함께 보라색 구름을 타고 오는 25 보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.